

“금투협 첫번째 고객은 회원사… 즉시 대응형 회장이 될 것”



인터뷰

이 현 승

금융투자협회 회장 후보자

(前 KB자산운용·SK증권 대표)

재정경제부 정책 설계·집행 경험
증권사 CEO 등 현장 중심 실무도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신설 추진”

자본시장 규제 개편과 연금·세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금융투자협회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정부 정책을 단순히 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현장의 언어를 정책 설계 단계에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다. 관·민을 모두 경험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SK증권 대표는 “정책과 시장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협회가 실행 중심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시장과 정부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1988년 행정고시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입문해 정책 설계·집행을 경험했고, 이후 글로벌 투자는은행과 국



금융투자협회 회장에 도전하는 이현승 전 KB자산운용·SK증권 대표.

/메트로경제

내 증권·운용사 CEO를 두루 거친 이력 때문이다. 그는 “협회는 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니라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협회의 첫 번째 고객은 정부가 아니라 회원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시급한 고민’이 완전히 다르다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대형사는 글로벌 확대·발행어음·IMA 같은 성장 과제가 중심이고, 중소형사는 NCR·준법·IT 비용처럼 생

존과 직접 연결된 문제가 더 절박하다”며 “이 간극을 조정하는 역할이 협회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취임 즉시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가 준비 단계의 요건 정리와 심사 동향 분석, 서류 완성도를 높여주는 사전 컨설팅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해 “연계 제재로 막히는 혁신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가장 먼저 정부·국회와 논의하

겠다고 밝힌 영역은 퇴직연금·세제 개편이다. 이 전 대표는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 자금이지만 적립금의 80% 이상이 원리금 보장형에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디폴트옵션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 주식형 상품의 매매차익 과세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상품이 연금계좌에선 과세된다. 이 구조에서는 연금자금이 해외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연금혁신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장기 보유특별공제 범위 확대, 청년도약펀드 도입 등 세제 방향도 제시하며 “세금은 투자자 의사결정의 첫 번째 변수”라고 말했다.

모험자본 정책에 대해서는 “모험자본은 단순 재무투자가 아니라 국가 성장의 근본 체력”이라며 조달·투자·회수 단계 모두가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행어음·IMA 편종을 벗어나 증권금융·기관투자자·BDC·해외자본으로 자금을 다변화하고, BDC 운용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공공·민간이 함께 만드는 순환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규정만 고치고 내부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통제는 문화”라고 말했다. 업계 구성원

이 ‘이 행동을 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감각을 체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그는 사고이력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사고이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협회 차원에서 관리·공유해 “업계 전체의 자정 기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준법·IT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준법 체크리스트 공동화 체계를 통해 “서류만 쌓이는 준법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 환경을 그는 미·중 갈등, AI 경쟁, 초고령화·저성장이 겹친 ‘사방이 편할 게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지금이야말로 은행 중심 대출경제에서 투자은행 중심 자본시장경제로 넘어갈 ‘전환의 시간’이라며 협회를 “정책과 시장을 잇는 실행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금투협 회장이 된다면 임기를 마친 뒤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는 질문에 “‘이현승 회장 시절, 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었다’고 말해준다면 충분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즉시 대응형 회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기지가 펴는 코스닥… 내년 ‘1100포인트’ 전망

정부 정책, 기술수출 증가 등 영향
“우량기업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우량주들, 전망 있는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 이런 데가 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수십 년간 (코스닥에는) 몇 십원 짜리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다.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9월 10일 이재명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못난이’ 소리를 듣던 코스닥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증권가는 정부 정책 자금과 바이오 등 코스닥 기업들의 펀더멘탈 회복세가 반등 동력이 될 것으로 봤다. 내년 코스닥이 1100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 “코스닥 지수 ‘1100’ 간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는 63.64%, 코스닥은 34.57% 상승했다. 코스피(11월 28일 지수 3926.59)와 코스닥(912.67) 간 상대강도(코스피 지수를 코스닥 지수로 나눈 값)는 약 4.3배로 역대 최대치(4.6배)에 근접하고 있다.

양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달 코스피는 지난해 11월 9조9214억원 대비 17조4334억원으로 76% 증가했다. 반면, 코스닥은 6조9702억원에서 9조4795억원으로 36% 늘어났다. ‘불장’의 온기가 코스닥에는 부분적으로 퍼진 모습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강도가 역사적 최고수준으로 확대됐다”며 “2000년 이후 코스닥 대비 코스피 상대 강도는 평균 2.8배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880.06)보다 32.61포인트(3.71%) 오른 912.67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코스닥시장이 ‘1000스닥(천스닥)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실적 등 밸류에이션에 달려 있다고 본다.

김종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은 정책 모멘텀”이라며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벤처와 첨단산업을 경유해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 가시성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코스닥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약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2025년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기술수출 금액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2026년에도 기술수출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코스닥 시가총액이 약 100조원 증가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11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부실기업 등 정리 과제

코스닥이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과거 일본 증시 사례처럼 부실 기업이 대거 정리될 경우, 900선 초반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이 1000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일환으로 2022년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증권 시장을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 3단계로 재편하며, 시가총액·유동성 등 상장 요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체 상장사의 5% 이상인 200여 기업이 요건 미달 상태로 분류돼 하위 시장 이전이나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우량 기업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은 이달 6일 코스닥 상장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내달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코스피 이전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 에코프로비엠도 지난 3월 이전상장을 철회하면서 한 차례 좌초됐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염두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모두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조원을 넘기는 기업은 에코프로만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2부 리그’라는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계속되는 이전 상장은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기반과 상장 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국내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 ‘CD1년금리액티브 ETF’ 자산 급증

금리 상승세 영향… 11월 5000억 유입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가 최근 CD 1년물 금리 상승세에 힘입어 순자산 1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7일 종가 기준 ‘TIGER CD1년금리액티브(합성) ETF’ 순자산은 1조 5309억원이다. 이달에만 약 5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의 급격한 상승 덕분이다. 27일 기준 CD 1년금리는 2.93%로, 10월 말(2.55%)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TIGER CD1년금리액티브 ETF’는 국내 최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다. CD 1년물 금리를 일할 계산해 매일 복리로 반영하며 기간이나 조건 없이 단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하루 금리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되는 등 제약이 있는 예금과 달리 유동성도 우수하다.

/허정윤 기자

KB자산운용, 국내 배당주펀드 수익률 최상위

KB연금가치배당 등 1~4위 석권

KB자산운용이 차별화된 배당전략을 바탕으로 배당주 펀드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3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KB자산운용의 배당주 펀드 4종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국내 배당주 펀드 151종 가운데 1~4위를 기록 중이다.

이 기간 각 펀드의 수익률은 ▲KB연금가치배당 73.71% ▲KB퇴직연금배당 73.66% ▲KB지속가능배당청년형소득공제 73.42% ▲KB액티브배당 73.19%에 달한다.

KB자산운용은 ▲고배당·저평가 전략

▲배당성향·배당능력 개선 가능성 분석 ▲저성장 시대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의 선별 투자라는 공통된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배당주 펀드를 운용한다.

연금·퇴직연금·청년형·일반 계좌 등 다양한 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고배당 상품 라인업을 갖춘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라면 ‘KB 연금가치배당 펀드’, 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KB 퇴직연금배당 펀드’, 청년 장기계좌 가입자라면 ‘KB 지속가능배당청년형 소득공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고 싶다면 ‘KB 액티브배당 펀드’를 이용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